

도요나카시 외국인 시민회의

뉴스레터 No.17

편집·발행 : 도요나카시외국인시민회의 사무국

◇ 제9기 외국인 시민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제9기 외국인 시민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위원들은 일본 체재기간이나 사는 이유, 국적 등이 다양하지만 지금까지 도요나카에서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도요나카에 사는 외국인들의 생활 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2년간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외국인에게 살기 좋은 동네는 일본인에게도 살기 좋은 동네」라는 생각 아래 누구라도 살기 좋은 도요나카가 되도록 8명이 힘을 모아보고자 합니다.



◇ 제9기 위원 자기소개◇

좌장 : 카타야마 피오나 (호주)



13살때부터 일본을 좋아하게되어 간사이의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1년씩 유학했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 일본에 취직하고, 현재 멋진 일본인 남편과 초등학교를 다니는 귀여운 아이 둘과 네명이서 살고 있습니다. 도요나카 국제교류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오야코(부모와 함께)일본어」라는 육아서클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도요나카 다문화공생에 기여하고파 초등학교 외국어체험 강사와 제7기 외국인 시민회의 위원을 역임한 적이 있습니다.제9기회의에서 좋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직무대리 : 후로루 카라비아 산티아고 (에쿠아도르)

저는 에쿠아도르 출신으로, 부모님이 에쿠아도르와 스페인 분입니다. 초등학교때부터 유도를 해 왔습니다. 처음 일본에 온 것은 1992 년으로 지금까지 시코쿠, 큐슈, 관동지방 등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도요나카에 이사와서부터 환경이 매우 좋은 곳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과 시민 여러분에게 살기 편한 국제적인 도요나카시를 만드는 협력자가 되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스마 스루타나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에서 2008 년에 왔습니다. 도요나카에 13 년째 살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스탬포드 대학에서 경영관리를 공부했습니다. 문화프로그램이나 이벤트 운영을 좋아합니다. 도요나카 국제교류센터에서 일본어를 배웠습니다. 일본어를 더 공부하고 싶습니다. 도요나카시의 초등학교에서 통역과 ECC 주니어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외국인 시민회의 위원이 되어 매우 기쁩니다. 활동이나 회의로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생각을 나누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은 저에게 큰 기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디카리 수잔 바하듀르 (네팔)

나마스테! 저는 네팔에서 온 지 19 년째 입니다. 유학기간의 반 이상을 도요나카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사회에서 유학생으로, 사회인으로, 부모로, 그리고 「외국인」으로 여러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도요나카시는 90개국의 6,117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는 훌륭한 곳입니다. 하지만 다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적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사회의 한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일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나라 여러 사람도 이문화교류를 할 수 있을까 모색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 사람들과 접하는 기회를 늘리고, 상호이해를 통해 멀티컬쳐사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원과 협력 부탁드립니다.



오우 에이 (중국)

오사카 대학에 재학중인 유학생입니다. 학교에서는 시민 참가에 의한 도시만들기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나라에 따라 문화나 관습의 차이로 인해 평소 신경쓰지 않고 지나쳤던 것도 외국인에게는 큰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 시민회의에서 외국인 시민으로 회의에 참가하고 외국인으로 생활하는데 구체적인 장애를 시에 전달하고 싶습니다.

코우 쿄쿠에이 (중국)



중국 매스컴에서 5 년간 근무하고 일본에 유학왔습니다. 지금은 효고의 공익단체에서 외국인 지원, 직업훈련, 지역만들기 지원 등의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연이 매우 풍부한 나라입니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도 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이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서로 돕고, 어떤 차별도 장벽도 없는 다양성과 조화가 실현된 미래가 반드시 올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요나카시의 일원으로 누구라도 살기 좋은 다문화 공생의 도시 만들기 사업에 힘이 되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타키모토 크라우디아 (페루)



도요나카에 20 년 이상 살고 있습니다. 현재 영양사 일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경험을 살려 도요나카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류 코쿠소우 (중국)



일본에 유학 온 지 25 년이 되었습니다. 도쿠시마, 치바, 고베에 살다가 9 년전에 도요나카에 왔습니다. 정보통신연구기구의 뇌정보통신융합연구센터에서 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직장에는 학생을 포함해 많은 외국인이 있었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외국인 시민회의를 통해 외국인의 고민과 생각 등을 나누고 싶습니다.

◇ 제 8 기 외국인 시민회의 보고서를 요약했습니다 ◇

2019년 7월부터 시작한 「제 8 기 외국인 시민회의」가 약 2 년에 걸쳐 네번의 회의를 하고 끝이 났습니다.

이 회의 중에 위원 여러분이 「살기 익숙해진 지역에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를 테마로 의견을 나누고 사무국이 보고서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5월 28일, 위원들이 오사나이 시게키 도요나카시장님께 회의내용을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대방지를 위해 위원들은 온라인으로 참가하는 예년과는 다른 보고회였습니다.

이 외국인 시민회의에서 나온 의견은 가능한 것부터 시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 제8기 위원 후기 (발취) ◇

【회의에 참가한 제 8 기 위원 여러분의 후기입니다.】

- ✍️ 앞으로 외국인뿐 아니라 도요나카시민으로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다른 문화의 이해, 상호이해에 더 깊게 쌓아 나아가야겠습니다.
- ✍️ 코로나등으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도 있었지만 온라인 회의를 하며 위원 여러분과 시간을 공유할 수 있어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 ✍️ 다른 위원의 몇몇 의견은 내 자신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시점에서의 의견도 있어 다시한번 다양성을 느꼈습니다.

◇ 외국인 시민회의 정보에 관하여 ◇

【외국인 시민회의 정보는 도요나카시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시민회의 보고서 다언어 개요판은 여기에

https://www.city.toyonaka.osaka.jp/jinken_gakushu/kokusai/gaikoku/index.html



◇ 외국인을 위한 상담창구 ◇

【도요나카시에서는 외국인을 위해 외국어로 말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 외국인을 위한 시정안내 · 상담창구 】 <도요나카시청 제 1 청사 5 층>

시간 : 평일 10:00~17:00

언어 : [영어] 월 · 화 · 목 · 금요일 [중국어] 수요일

연락처 : 06-6858-2730

※그 외 다른 언어로 말하고 싶은 분은 1 주일 전까지 전화해 주십시오.

【 도요나카 국제교류센터 다언어 상담 서비스 】 <한큐 도요나카역앞 「에토레도요나카」 6 층>

시간 : 월 · 화 · 목 · 금 · 토요일 11:00~16:00

언어 : 영어, 중국어, 한국 · 조선어, 필리핀어 타이어, 인도네시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베트남어, 네팔어

연락처 : 06-6843-4343

«도요나카시 외국인 시민회의 사무국»

〒560-8501 도요나카시 나카사쿠라즈카 3-1-1

도요나카시 인권정책과 남여·다문화공생계

전화:06-6858-2654 FAX:06-6846-6003

메일: jkokusai@city.toyonaka.osaka.jp

홈페이지: https://www.city.toyonaka.osaka.jp/jinken_gakushu/kokusai/gaikoku/index.html

